

# 아리스토텔레스의 우정론:

『니코마코스 윤리학』 8, 9권을 중심으로

장미성\*

## [요약]

사랑은 철학의 탐구 대상이 아니라고들 생각하지만, 철학은 사랑의 탐구에서부터 시작되었다. 우정에 관한 첫 작품인 플라톤의 『뤼시스』에서 소크라테스는 왜 친구를 사랑하는가에 대해 물었지만, 필리아와 에로스라 욕망에 대해 명확하게 구분 짓지 않고 단지 부모의 사랑과 에로스적 사랑, 그리고 친구들 간의 사랑과 사물들을 사랑하는 것에 대해 언급했을 뿐이다. 반면 아리스토텔레스는 『니코마코스 윤리학』에서 우정에 관한 모든 것을 체계적으로 정리하여 최고의 덕으로 높인다. 우정은 무엇을 주고 받는냐에 따라 쾌락을 위한 것, 유익을 위한 것, 그리고 덕을 주고받는 완전한 우정으로 구분된다. 우정이야말로 행복에 있어 가장 필요한 것이며, 이를 통해 우리는 선행의 기회를 얻고, 지속적인 활동이 가능하며, 나를 객관적으로 성찰할 수 있다. 아리스토텔레스의 우정이란 에로스처럼 어떤 광기나 외부에서 들어온 신적인 격정이나 감정이 아닌, 지극히 인간적이며, 인간의 덕과 관련된 것으로 끊임없는 덕의 활동을 통해 얻어지는 것이다. 아리스토텔레스 우정의 특징은 자기를 사랑하며, 자신에게 고귀한 것을 선택하는 자기애에서 출발하여, 아버지와 아들, 남편과 아내, 형제들, 친구들 간의 관계뿐 아니라, 더 나아가 한 공동체 내의 시민들과의 관계를 포함하는데, 우정을 지닌 공동체는 고귀한 것을 놓고 서로 경쟁하며 가장 고귀한 것들을 행하기 위해 서로 노력하는 공동체이다. 우리는 태어나면서 주어진 가족 관계에 머무르지 않고, 우정을 통해 덕을 실천하며 완전한 사랑을 추구해 갈 때, 훌륭한 삶을 뜻하는 행복을 갖게 되는 것이다.

**[주제어]** 아리스토텔레스, 니코마코스 윤리학, 사랑, 우정, 필리아, 덕, 행복

---

\* 숭실대 철학과 조교수

\*\* 이 논문은 2019년 대한민국 교육부와 한국연구재단의 지원을 받아 수행된 연구임(NRF-2019S1A5C2A02081381).

<https://doi.org/10.34162/hefins.2022..28.003>

## I. 들어가며: 우정에 관한 철학적 탐구<sup>1)</sup>

흔히 사랑은 철학적 탐구의 대상이 아니라고 생각한다. 사랑은 신비롭고 복잡하며 극히 개인적이다. 우리는 자신의 아이를 끔찍하게 사랑하는 모성애로부터 신에 대한 사랑까지 다양한 대상에 사랑이란 단어를 붙인다. 사랑이란 결코 철학적으로 분석될 수 없는 개념임에도 불구하고, 철학의 주제는 처음부터 사랑이었다. (철학philosophia의 뜻도 지혜를 ‘사랑’하는 것이다.) 엠페도클레스는 사랑과 불화가 네 원소(뿌리)들을 합치게도 하고 흩어지게도 한다고 설명하면서 자연적 원소들을 지배하고 움직이는 것을 사랑이라고 말한다.<sup>2)</sup> 피타고라스 역시 친구의 것은 공통의 것이라고 말하거나, 친구는 좋은 것을 공유한다고 주장하면서 사랑에 관해 탐구하고자 했다.<sup>3)</sup>

흔히 최초의 철학자로 꼽히는 소크라테스 역시 사랑을 최고의 연구과제로 삼았고, 사랑이야말로 이 세상 무엇보다 가장 강력하다고 생각했다.<sup>4)</sup> 그는 “나는 누군가를 사랑하지 않은 적이 한순간도 없었다”라고 말하면서 아테네인들을 뜨겁게 사랑했다.<sup>5)</sup> 소크라테스에게 사랑은 에로스였고, 그 에로스가

1) 아리스토텔레스의 필리아philia가 수평적인 관계뿐 아니라 수직적인 관계도 포함하기에, 필리아의 번역어도 우정이나 우애는 그 의미를 잘 담아낼 수 없는 것이 사실이다. 친애라는 번역은 아버지와 아들의 사랑, 형제들 간의 사랑과 같이 혈연적 관계를 포함시키기 위해 번역된 단어이며, 필리아를 사랑으로 번역해도 좋지 만 그러면 범위가 너무 넓어진다. 이런 이유로 국내 아리스토텔레스 전공 학자들도 다양한 번역어를 사용하고, 필리아를 번역하지 않은 채 philia라는 회랍어를 그냥 사용하기도 한다. 필자도 친애라는 번역어를 주로 사용했지만, 동서양의 우정을 비교하는 연구 세미나에서 이 논문 발표하면서, 동양과 서양을 다 아우르는 대중적 의미의 우정이라는 번역어를 채택했다. 그래서 본 논문에서 필자는 필리아를 우정, 또는 사랑으로 번역할 것이다.

2) 김인곤 외 역 (2005), pp. 356-357.

3) 김인곤 외 역 (2005), p. 168.

4) 플라톤의 『향연』 177d, 플라톤의 『카르미데스』 155c, 크세노폰 『향연』 8.2.

5) 소크라테스의 사랑에 관해서는 D'Angour (2020)를 참고하라. 『튀시스』에서도 소크라테스는 다른 일에는 보잘 것 없고 쓸모없지만, 사랑하는 사람과 사랑받는 사람을 금세 알아보는 재주를 본인은 타고났다고 말한다(204c).

아테네인들을 하나로 만들어 주며, 우리에게 올바른 삶을 안내한다고 그는 믿었다. 사랑의 목적은 소유나 쾌락이 아니며, 정의와 절제를 추구하는 것인데, 이것이 우리를 사랑으로 이끈다고 그는 생각했다.

사실 사랑은 고대 그리스에서 네 가지 단어로 표현되었다. 성적인 사랑을 나타내는 에로스 $erōs$ 와 친구들 간의 우정을 뜻하는 필리아 $philia$ , 호의와 환대를 베푸는 의미의 아가페 $agapē$ 와, 부모 자식 간 혈육에 의한 본능적인 애정을 뜻하는 스토르게 $storgē$ 가 그것들이다. 이 중 우정이라고 부르는 필리아는 친구 사이의 사랑뿐 아니라 부모 자식 간의 사랑, 사제 간의 사랑, 주인과 노예와의 사랑, 시민들 간의 사랑, 또한 더 나아가 나라와 나라와의 사랑, 그리고 인류에까지도 아우르는 용어이다. 영어로는 주로  $friendship$ 으로 번역되고, 우리나라 말로는 사랑이나, 우정, 우애, 친애 등으로 번역되는데, 이는 수평적인 관계뿐 아니라 수직적인 관계도 포괄한다.

$philia$ 는 형용사와 명사로 다 쓰이는  $philos$ 에서 유래했으며, 형용사일 때 ‘나의 소중한’ 혹은 ‘친애하는’이란 뜻이며, 명사일 때 이런 감정을 주고받는 ‘친구’를 의미한다. 동사는  $philein$ 으로, 이에 해당하는 추상명사가 바로  $philia$ 이다. 그런데 우리가 생각하는 필리아는 친구들 간의 사랑하는 감정이라기보다 원래는 동료들 간의 상호 협력적 관계를 의미했다.<sup>6)</sup>

우정에 관한 최초의 철학 작품은 플라톤의 『뤼시스』이다. 플라톤의 『뤼시스』, 『향연』, 『파이드로스』는 잘 알려진 대로 사랑에 대한 삼부작이며, 그중 가장 유명한 『향연』의 주제는 에로스로, 이 작품 때문에 플라톤은 에로스의 철학자라는 명성을 얻었다. 반면 ‘우정에 관하여’라는 부제를 단 『뤼시스』는 우정에 대한 첫 철학적 작품임에도 불구하고 해석의 어려움으로 인해 많은 주목을 받지 못하고 있다.<sup>7)</sup> 하지만 이 작품의 우정에 관한 심오한

6) 호메로스의  $philia$ 는 가까운 친족을 뜻하거나, 친구, 또는 동료애의 의미로 쓰였고, 서로 간의 친밀한 감정뿐 아니라 서로 호혜를 베푸는 이익적 관계를 뜻하기도 했다. 언어적 의미에 관해서는 Dover (1978)와 Konstan (2006)에 잘 나타나 있다. 또한 Donlan (1980), p. 14, Heath (1987), pp. 73-74, Goldhill (1986), p. 82, Belfiore (2000), p. 20.를 참고하라.

분석과 설명은 아리스토텔레스에게 많은 영감을 주었음에 틀림이 없었을 것이다.

『뤼시스』 대화편에서 소크라테스는 팔라이스트라(레슬링 도장)에서 크테시포스와 뤼시스라는 소년을 사랑하는 히포탈레스를 만나 함께 에로스에게 대한 대화를 나누고, 이후 함께 팔라이스트라로 들어간다. 소크라테스는 거기서 뤼시스와 그의 친구 메넥세노스를 만나게 되는데, 이로 인해 그들의 대화 주제는 에로스에서 우정으로 바뀌게 된다.<sup>8)</sup>

크테시포스는 히포탈레스가 뤼시스를 찬미하며 만든 시와 노래가 있다고 말하는데, 그는 “사랑하는 자로서, 또 그 아이에게 다른 사람들보다 유독 주의를 기울이면서도, 어린 아이조차도 말할 수 있는 것 이상의 자신만의 idion 말은 조금도 갖고 있지 않다는 게 어찌 우스꽝스런 일이 아니겠습니까?”(205b7)라고 소크라테스에게 말한다. 여기서 사랑이란 신비롭고 그 사람만의 독특한 개인적인 것으로 우리가 사랑에 빠지는 이유를 보편적인 이유로 말할 수도, 설명할 수도 없다는 것이다. 사랑에 대한 이런 설명은 몽테뉴의 다음과 같은 설명을 떠올리게 한다. “당신이 내가 왜 이 남자를 사랑하는지 말하라고 강요한다면, 나는 그는 그였고 나는 나였다는 대답밖에 표현할 수 없습니다.”<sup>9)</sup> 사랑이 만일 개인만의 독특한 것 때문에 생겨난다면, 사랑은 어떤 설명과 분석도 할 수 없는 신비하고 비밀스러운 개인적인 문학의 대상이 된다.

하지만 소크라테스는 이 견해에 반박하며 뤼시스에게 다음과 같이 묻는다.

7) 부제는 기원전 1세기 초 플라톤 텍스트의 편집자 트라셀로스에 의해 결정된 것이다.

8) 이 작품에서 플라톤은 히포탈레스가 뤼시스를 사랑하는 것을 에로스, 뤼시스와 메넥세노스가 서로 좋아하는 것을 필리아로, 뤼시스 부모가 뤼시스를 사랑하는 것을 수동적인 필리아로, 그리고 사람이 여러 대상을 사랑하는 것을 능동적인 필리아로 구분하여 논의를 전개한다. 『뤼시스』에 관한 작품 해설은 플라톤, 강철웅 역 (2021)을 참조하라.

9) Montaigne (1976), p. 139.

“그렇다면 어떤 일들에 대해 우리가 쓸모없을 때 *achrēstos*, 그런 일들에 있어서 우리가 누군가에게 친구가 되고 누군가가 그 일들에 있어서 우리를 사랑하게 될 것인가?” (210c7-8; cf. 210d1-4) 즉 소크라테스는 어떤 사람이 사랑받는다면, 그는 쓸모 있기 때문일 거라고 사랑의 원인에 대해 설명하고자 한다. 사랑의 원인이 일반적으로 유용성이라면 이제 사랑은 철학적 분석의 대상이 될 수 있다. 위에서 말한 *idion*은 개인적이고 자신만의 독특한 것으로 좋음과는 관련이 없지만, 유용성 혹은 유익이라는 개념은 일반적이고 좋음과 관련이 있기 때문이다.

이제 『뤼시스』에서 소크라테스는 훌륭하지도 나쁘지도 않은 몸이 나쁜 것이자 적인 병 때문에 훌륭한 것이자 친구인 건강을 위해 훌륭한 것, 즉 의술의 친구가 된다고 말한다. 그런데 이때 의술의 친구인 것은 건강을 위해서이고, 건강 역시 다른 어떤 것을 위해 친구가 된다. 이 과정은 무한히 계속되거나 아니면 시작점, 즉 진정한 친구인 첫째 친구 *prōton philon*에 도달할 것이다. 이 첫째 친구는 어떤 다른 친구를 위해서 친구일 수 없고, 그 자체로 친구여야 하는 것처럼 보인다(220e). 하지만 ‘~을 위하여’의 나쁜 것이 곁에 없는 한 그것은 친구에게 하는 원인을 상실함으로 친구가 될 수 없다. 결론적으로 소크라테스는 욕구가 우정의 원인이라고 생각한다. 욕구하는 것은 자기에게 있었는데 빼앗기게 된 것이며, 이것은 자기에게 속한 것 *oikeion*이다 (221d2-221e5). 이로써 우정에 관한 규정은 다시 크테시포스의 사랑 규정으로 돌아간 것처럼 보인다.

소크라테스는 왜 친구를 사랑하는가에 대해 물었지만, 필리아와 에로스와의 욕망에 대해 명확하게 구분 짓지 않고 단지 부모의 사랑과 에로스적 사랑, 그리고 친구들 간의 사랑과 사물들을 사랑하는 것에 대해 언급했을 뿐이다.<sup>10)</sup>

10) 사실 고대 그리스에서 에로스와 우정은 서로 간의 엄격한 구별 없이 느슨하게 함께 사용된 개념이었다. 제논은 에로스의 목적이 우정이고, 에로스가 도시를 지켜주는 신이라고 생각했다(SVF I. 263, DL 7.130). 아리스토텔레스의 에로스와 필리아의 관계에 관해서는 장미성 (2014), pp. 27-64.을 참고하라.

그리고 욕망의 원인을 인간 영혼의 불완전성에서 찾으면서 논의를 마무리하는데, 이 때문에 사랑에 대한 이야기는 『향연』에서 마무리된다.<sup>11)</sup>

그럼에도 불구하고 소크라테스는 튀시스와 그의 친구 메넥세노스를 통해 우정이란 나이, 가문, 외모, 재산뿐 아니라 정의와 지혜의 면에서도 동등함에 기초해 있다고 주장하면서, 친구란 서로 좋아하는 관계로, 유사한 것이 유사한 것의 친구가 되는지 상반된 것이 상반된 것의 친구가 되는지 검토했는데, 이 역시 아리스토텔레스 우정론에 많은 영향을 끼쳤다. 그렇다면 아리스토텔레스는 우정을 어떻게 정의 내렸을까? 아리스토텔레스는 『니코마코스 윤리학』 8, 9권에서 우정을 세 가지 종류로 구분해서 설명하고 있고, 동등한 관계뿐 아니라 동등하지 않은 관계에서도 발생하며, 심지어 얼굴도 모르는 시민들 간에 발생하는 정치적인 우정으로도 확대될 수 있다고 주장한다. 본문에서는 아리스토텔레스 우정론의 특징이 무엇이고, 가장 유명한 우정의 정의인 “친구란 또 다른 나”라는 자기애를 분석해 보면서, 혈연적 관계인 가족 간의 우정에서부터 정치적 우정에 이르기까지 아리스토텔레스가 강조하고자 하는 철학적 탐구 대상으로서의 우정을 살펴볼 것이다.

## II. 아리스토텔레스의 우정론

### 1. 아리스토텔레스 우정론의 특징: 덕으로서의 우정

흔히 우리는 사랑이나 우정을 감정이라고 생각한다. 사랑의 반대말은 증오인데, 증오란 전적으로 감정이기 때문이다. 하지만 아리스토텔레스가 생각하는 사랑 또는 우정은 에로스와 달리 덕과 관련된 것이다. 사실 우정에

11) 플라톤은 에로스를 육체적 욕망이나 감정을 넘어서는 아름다움과 좋음에 관한 원동력으로 보았고, 아리스토텔레스도 『형이상학』에서 이 개념을 받아들여 부동의 원동자가 이 세상을 움직이는 힘을 ‘사랑받음으로써’라고 말하면서 에로스를 설명한다(1072b3-4).

관해 설명하는 8권 1장의 첫 문장은 “우정은 일종의 덕이거나 혹은 덕을 수반하는 것”이다. 아리스토텔레스도 우정은 덕이라고 정확하게 말하기보다는 일종의 덕이라고 소개함으로써 우정의 감정적인 부분을 제거하지 않은 것처럼 보인다(1155a1). 하지만 8권 5장에서 그는 애호는 감정이지만, 우정은 덕과 관련된 품성상태로 설명하는데, 사랑받는 사람들 자체를 위해서 그들에게 선을 바라는 것은 감정이 아닌 품성상태에 따른다는 게 그 이유이다(1157b31-33).

그리고 우정이야말로 우리 삶에서 가장 필요한 것이며 선행(euergeresia)의 기회를 마련해 주고, 고귀한 행위를 위한 것으로, 친구와 함께 하면 사유에 있어서나 행위에 있어서 더 강해진다(1155a1-16). 이와 같이 아리스토텔레스에게 사랑은 더이상 개인적이고 신비로운 베일에 싸인 것도, 강렬한 욕구나 갈망에 관련된 것도 아닌 윤리적인 것이 되어 버렸다. 그리고 아리스토텔레스에게 사랑은 소크라테스와 플라톤이 찬미하던 에로스가 아닌 필리아로 대표되어 성격적 덕으로 고찰하게 되었다.

사실 사랑이란 우리에게 본성적인 것이다. 부모가 자식을, 자식이 부모를 사랑한다는 것은 무엇보다 자연스러운 일이며, 인간뿐 아니라 동물들 역시 모성애를 보여준다. 사랑은 사랑받는 것보다 사랑하는 것에서 더 잘 보여지는데, 어머니들은 자식을 사랑하지만 사랑받기를 구하지 않는다(1159a28-33). 부모의 자식 사랑뿐 아니라, 남편과 아내도 본성적으로 서로에 대해 우정을 가지고 있는 것처럼 보인다(1162a16-19, Pol. 1252a26-30). 그래서 아리스토텔레스는 모든 사랑이 공통의 교제 속(koinōnia)에 정의와 함께 늘 존재하며, 친족 사랑과 동료 사이의 사랑, 시민들 간의 끈끈한 정과 손님에 대한 사랑까지 모두를 우정으로 생각했다(1161b11-16). 이제 사랑의 기원은 상호 간의 뜨거운 감정이 아닌 교제 속의 유용성으로 규정되는데, 그렇다고 사랑이 상호 의무적이나 계약적 책임만을 뜻하는 것은 아니다.

인간은 자신의 가족을 사랑할 뿐 아니라 한 번도 본 적 없는 사람도 사랑할 수 있는 인류애 역시 가지고 있다. 더 나아가 인간뿐 아니라 도시

국가들 역시 우정에 의해 서로 결속될 수 있다. 물론 이런 결속은 결혼이나 지리적 경계를 합치는 것으로 발생하는 것은 아니다. 하지만 아리스토텔레스는 국가와 국가와의 결합도 우정으로 생각하는데, 이런 이유로 나라의 입법가들은 정의보다 우정을 만들어 내는데 정성을 쏟고 있다는 것이다. 아리스토텔레스는 “서로 친구인 사람들 사이에서는 더이상 정의가 필요하지 않지만 서로 정의로운 사람들 사이에서는 우정이 추가적으로 필요하고, 정의의 최상의 형태는 ‘우정의 태도philikon’처럼 보인다.”라고 말하면서, 플라톤이 최고의 덕이라고 주장했던 정의보다 우정을 더 상위의 덕 개념으로 올려 놓는다. 이제 사랑은 단지 일종의 덕일 뿐만 아니라 최고의 덕의 자리를 차지하게 된다.<sup>12)</sup>

아리스토텔레스는 소크라테스의 주장에 따라 우정을 ‘사랑할만한 것’으로 규정하면서, 이를 즐거운 것이나 유익한 것이나 좋은 것인 세 가지 종류로 구분한다. “사랑할 만한 것philēton이 무엇인지 이해하게 되면 이러한 문제들에 관해서는 아마 분명해질 것이다. 모든 것이 사랑받는 것이 아니라 사랑할 만한 것이 사랑받는 것처럼 보이기 때문이다. 그런데 사랑할 만한 것은 좋은 것이나 즐거운 것, 혹은 유익한 것이다” (1155b18-19).<sup>13)</sup> 이 정의에 따라 아리스토텔레스는 이 세상의 모든 사랑을 세 가지 종류로 구분한다. 즐거운 것에 관련된 사랑 중 하나는 에로스로, 젊은이들은 즐거움을 이유로 순식간에 사랑에 빠졌다가 순식간에 헤어지는데, 이런 의미에서 즐거움에 관한 사랑은 우연에 따른 의미에서만 사랑이라고 말할 수 있다. 이제 에로스적 사랑은 이데아를 사모하는 플라톤 철학의 핵심 개념에서 내려와 즐거움을 주고받는

12) 『니코마코스 윤리학』 전체가 10권인데 이중 개별적 덕들은 3-4권에서 설명되고, 중요한 정의는 5권 전체에서, 그리고 우정은 8권과 9권에서 설명되고 있다. 분량면에서도 우정이 얼마나 중시되었는지 가늠할 수 있다. 아리스토텔레스는 우정을 일종의 덕으로 보았기 때문에 8권 5장에서 사랑은 감정이 아닌 품성상태와 활동으로 설명된다.

13) 2권에서는 우리가 선택하고 취하는 것에는 세 가지가 있는데, 고귀한 것, 유익한 것, 즐거운 것으로 설명하고 있다(1104b30-31).



사랑의 한 구석을 차지하게 된다. 에로스는 필리아와 달리 한 사람에게만 과도하게 몰두하며(1158a8-15), 사랑하는 자erastēs와 사랑받는 자erōmenos인 능동과 수동이 구분되는 개념인데, 사랑하는 사람은 사랑받는 자가 늘 받기만 한다고 불평한다(1164a2-5).

젊은이들과 다르게 노인들은 불타오르는 에로스적 사랑이 아닌, 유익을 위한 사랑을 하는데 이는 자신들에게 돌아오는 어떤 이익과 좋음을 이유로 상대방에게 애정을 갖는 것이며, 이 역시 유익을 주거나 받지 못하게 되면 쉽게 해체되고 만다. 사실 유익을 주고 받는 사랑은 플라톤이 『뤼시스』에서 언급한 것이다. 하지만 아리스토텔레스는 즐거움을 이유로 성립하는 우정은 완전한 우정에서도 나타나지만, 유익을 위한 우정은 상인과 같아서 완전한 의미의 우정에서는 보이지 않는다고 말한다. 지극히 복된 사람은 즐거운 사람을 필요로 하겠지만 유익한 사람은 필요로 하지 않는다는 게 그 이유이다(1158a18-23).

또한 유익을 이유로 성립하는 우정은 서로 반대되는 것으로부터 생겨나는 데, 예컨대 자기에겐 유익이 된다면, 가난한 사람은 부자와도 친구가 될 수 있고, 무식한 사람은 유식한 사람과도 친구가 될 수 있어서, 서로 다른 것을 보답으로 줄 수 있다(1159b13-15). 더 나아가 아리스토텔레스는 인생에는 단계가 있고 각 단계에는 특징적인 우정의 형태가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

마지막으로 즐거움을 위한 사랑과 유익을 위한 사랑과는 달리 좋음을 주고받는 사랑이 있는데, 이는 덕이 있는 사람들 사이에서만 성립 가능한 완전한 사랑이다. 이런 사랑은 우연에 따르는 것이 아니라 그들 자신을 이유로 성립하며, 단적으로 즐거우며 지속적으로, 엄밀한 의미의 우정은 바로 이 완전한 우정만을 뜻한다. 앞서 『뤼시스』에서 소크라테스가 말한 첫째 친구와 마찬가지로, 아리스토텔레스도 좋음은 그 자체로kath' heautous 성립하고, 즐거움과 유익은 우연적으로kata symbebēkos 성립하기 때문에 (1156b6-11), 오직 덕을 주고받는 사랑만이 진정한 의미의 우정이라고 규정하

면서 플라톤의 사상을 계승하고 있는 셈이다. 그리고 이런 사랑은 품성상태에 관련된 것으로 지속적이고 완전하게 만들어 갈 수 있다. 그 결과 아리스토텔레스는 누구나 친구가 될 수 있고, 아무리 악한 자라도 친구는 있다는 일반적인 생각들을 다시금 검토하면서, 오직 좋은 사람들만이 친구가 될 수 있다는 것을 분명하게 명시하고 있다(1157a19, 31-33).

이제 우정은 감정의 영역에서 더 멀어져 덕의 영역으로 들어가며, 아리스토텔레스에게 있어 우정을 나누는 친구란 “서로에 대해 선의eunoia를 가지고 있고 상대방이 잘 되기를 바라고 그런 사실을 서로 모르지 않아야 한다”(1156a3-4).<sup>14)</sup> 우정이란 사물을 대상으로 한 것이 아닌 살아 있는 사람에 관한 것으로, 일방향이 아닌 쌍방향에 성립하는 선의이며, 악한 자에게서 나타날 수 없고, 신뢰와 시간과 사귀을 필요로 하며(1156b25-30), 동등성isotēs과 상호성에서 성립한다. 그리고 친구는 함께 보내는 시간과 경험을 필요로 하는 활동energeia에 기반한다. 테오그니스가 말했듯이, 세월 없이는 친구가 될 수 없는데, 친구는 바란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 여러 시험을 거친 후 가질 수 있기 때문이다. 더 나아가 우리는 동시에 많은 친구들을 사귄 수 없는데, 이는 동시에 많은 이들과 함께 활동하는 건 불가능하기 때문이다(EE 1237b12-38a16). 따라서 친구란 함께 살며suzēn, 서로에게 기쁨을 주고, 좋음을 제공한다는 점에서 성립한다(1157b6-13).

## 2. 또 다른 나, 친구: 자기애의 이타성

아리스토텔레스 우정론에 관한 가장 유명한 구절은 “친구는 또 다른

---

14) 『수사학』 2.4장에서 아리스토텔레스는 “친구란 다른 누군가를 사랑하고 그 보답으로 사랑받는 사람이며, 자신의 관계가 그런 것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자신을 친구라고 여긴다”(1381a1-3)고 규정한다. 따라서 사랑한다는 것은 우리가 좋다고 믿는 것들을 우리 자신을 위해서가 아니라 그를 위해 바라면서 힘닿는 데까지 그런 것들을 해주려고 하는 것이라고 정의할 수 있다(1380b37-8).

나allos autos, heteros autos”일 것이다(1166a32, 1170b7). 진정한 친구란 제 2의 나라는 주장은 “각자는 무엇보다 자기 자신에게 좋은 것을 바란다”(1159a13)는 뜻의 이기적인 자기 사랑을 의미할까? 아니면 나를 끄찍이 사랑한다는 뜻의 자기애는 친구도 내 몸처럼 사랑하라는 성경적 의미를 포함하고 있는 것일까? 윤리학의 목적이 이타주의에 있다면, 자기애가 우정의 핵심 의미라고 이해하기 힘든 것처럼 보인다.

『니코마코스 윤리학』 9권 4장에서 아리스토텔레스는 자기애를 설명하기에 앞서, 우정의 특징을 먼저 설명한다. 우정의 태도나 감정들philika이란 친구를 위해 좋은 것을 바라고 행하는 것, 친구의 존재만으로도 기뻐하는 것, 친구와 시간을 함께 보내며, 고통과 기쁨을 함께 공감하며 나누는 것, 이렇게 네 가지 특징을 갖는다. 그런데 이런 우정의 태도나 감정들은 친구에게 향할 뿐 아니라 자기 자신에 대해 가지는 태도에서도 발견된다고 아리스토텔레스는 설명하면서, “자기 자신에게 좋음과 그렇게 보이는 것을 바라며 실제로 행하는데, 바로 자기 자신을 위해 그렇게 한다”고 자기애에 관해 설명한다(1166a14-16). 그렇다면 친구를 향하는 우정의 태도나 감정들philika은 자기 자신에 대한 사랑의 태도나 감정들에서 온 것처럼 보이며(1166a1-2), 아리스토텔레스의 자기애는 우정의 원인이자, 자기 자신을 사랑하는 것이 친구로 확대되는 것처럼 볼 수 있다.

대부분의 학자들도 자기애를 우정의 근원으로 이해하면서, 친구를 사랑한다는 것은 자기 자신의 사랑에서 도출되거나 파생된 결과라고 보았다.<sup>15)</sup> 하지만 우정이란 자기를 희생해서 친구를 도와주거나 심지어 목숨까지 바치

15) Adkins (1963)을 시작으로, Kahn (1981), Annas (1988), Irwin(1988), Pakaluk(1998) 등이 이렇게 설명한다. 이 논쟁은 이창우(2021)가 자세히 설명하고 있다. 이창우는 자기애가 우정의 원인으로 소급되거나 우정이 자기애에서 파생된다는 것을 부정하고, 자기애와 타인에 대한 사랑을 분리해서 볼 것을 제시한다. 우정이 자기애라는 것과 우정이란 나를 포기하고 타인을 위해 희생해야 한다는 것 사이에 갈등 관계가 있으며, 따라서 우정의 원인으로서 타인에 대한 행위의 동기부여를 자기애에 소급시켜 주장하기보다, 친구를 위해 목숨까지 바치는 행위 자체를 우정의 실체로 보자고 주장한다.

는 이타적인 것인데, 자기애의 개념은 결국 나의 좋음을 위해 친구를 사랑하는 것으로 행위의 동기가 다시 자기 자신으로 소급된다고 볼 수도 있다.<sup>16)</sup> 그렇다면 우정이란 자기애의 확대된 개념으로 친구를 사랑하는 것이 결국 자기 자신을 위해 바라고 행하는 것일까? 자신의 좋음을 추구하는 동시에 친구의 좋음을 위해 목숨까지 버리는 것이 가능할까?

사실 플라톤에게 과도한 자기 사랑은 온갖 불의를 일으키는 원천이었다.<sup>17)</sup> 플라톤뿐 아니라 자기애라는 용어는 이타적인 것의 반대인 자기 중심적이며 이기적인 것을 뜻하는, 윤리학에서 지양해야 할 개념이다. 아리스토텔레스도 “사람들은 자기 자신을 제일 아끼는 사람들을 비난하며 자기를 사랑하는 자philautos로 부르며, 열등한 자는 모든 것을 자기 자신을 위해 행하는 듯한다”고 대중들의 의견을 소개한다(1168a29-31). 이런 사람들은 돈 문제에 있어서나 육체적 즐거움에 있어 자기가 더 많은 몫을 차지하려는 사람들이다(1168b16-18). 이들은 자신의 나쁜 감정에 따라 자기 자신뿐 아니라 타인들도 해친다(1169a13-14).

우선, 아리스토텔레스는 상식적으로 대중들이 생각하는 자기만 사랑한다는 의미에서의 자기애는 자신이 주장하고자 하는 자기애와 다르다는 것을 강조한다. 진정한 자기애는 자기만 사랑하는 이기적인 사람들과 정반대로 자신뿐 아니라 타인들에게도 유익은 준다. 따라서 우리는 아리스토텔레스가 주장하고자 하는 자기애에서 ‘자기’의 의미와 ‘유익’의 의미를 자세히 살펴봐야 한다. ‘유익’의 의미는 자신의 욕망을 극대화하면서 돈과 명예, 권력을 취한다는 뜻이 아니라, 자기에게 고귀한 것을 만들어 낸다는 의미에서의

16) 이창우(2021), p. 32는 이기심처럼 비난받는 자기애와 친구를 위해 목숨을 바치는 긍정적인 자기애, 그리고 자신에 대한 우정적 태도와 감정의 세 가지 부류로 아리스토텔레스의 자기애를 구분하여 설명하고 있다. 그는 여기서 긍정적인 자기애가 내 자신의 좋음이 아닌 타인을 위해 좋음을 행한 것으로 우정의 실체라고 보면서, 우정이 결국 내 자신의 좋음에서 나왔다는 자기애로의 소급을 비판하고 있다. 하지만 필자는 긍정적 자기애와 자신에 대한 우정의 태도와 감정으로서의 자기애가 지성을 가진 훌륭한 사람에 있어서는 결국 하나임을 밝히려 한다.

17) 플라톤, 김남두 외 역 (2018), 『법률』, 732b.

유익이며(1168b27), 이런 의미에서 자기를 사랑하는 이기적인 사람과 아리스토텔레스의 자기애는 구분된다. 또한 ‘자기’의 의미는 자신의 욕망이 아닌 ‘지성nous’으로, 자제력이 있고 없고도 이 지성이 그 사람을 지배하는가에 달려 있는데, 이것이 아리스토텔레스가 말하고자 하는 자기애의 ‘자기’의 개념이다(1168b37).

아리스토텔레스는 ‘자기’를 지성nous과 이성logos과 가장 주어진 부분 kyriōtaton의 세 가지 종류로 언급하면서, 이 부분을 사랑하고 만족시키는 사람을 자기를 사랑하는 사람으로 규정한다(1168b33-34). “지성은 크기에서는 작다 하더라도 그 능력과 가치에서는 다른 모든 것을 훨씬 능가하는데, 각각의 인간은 바로 이 최고의 것nous이라 할 수 있다”(1177b33-78a3).<sup>18)</sup> 이는 모든 인간이면 지성을 가지고 있으며, 누구든 지성이 선택하는 자기애를 가질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리고 이런 방식으로 자기를 사랑하는 사람만이 아리스토텔레스가 뜻하는 자기애이며, 대중들이 생각하는 이기적인 방식으로 자신을 사랑하는 것은 제외된다(1169b1-2). 다시 말해서, 욕망과 같이 이성이 없는 부분에 따른 자기애가 아닌 이성을 가진 부분 중 탁월한 부분인 지성에 따르는 자기애란 신실하고 훌륭한 사람들만의 자기애를 뜻하며, 훌륭한 사람들의 자기애는 친구와 조국을 위해 목숨까지 내어놓으며, 자기 자신에게 고귀한 것을 만들어 내기 위해 돈과 명예도 다 내어놓는다는 자기 희생과 같은 것이 된다(1169a19-22).

따라서 아리스토텔레스에게 자기애란 훌륭한 사람이 자신에 대해 갖는 관계에서만 가능하며, 그가 이런 행동을 하는 것은 친구를 위한다는 것을 생각하기에 앞서 자신을 위해서 그렇게 하는 것(1165b16-18)이고, 자신이 가지고 있는 것과 같은 것을 친구에게도 확장시키는 것(1166a30-31)으로

18) 아리스토텔레스는 10권 7장에서 다음과 같이 행복을 설명한다. “지성이 인간인 한 인간에게 지성을 따르는 삶은 가장 좋고 가장 즐거운 것이다. 그리고 이 삶이 행복한 삶이다”(1178a8). 행복이 일종의 활동이며, 최고의 활동은 지적인 ‘관조’라면, 여기서의 지성의 활동을 하는 인간은 거의 신과 같은 존재가 된다.

자기희생적 자기애이다. 그리고 이런 훌륭한 사람들이 우정론의 기준이고 척도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아리스토텔레스의 자기애란 악인들의 이기적인 것과는 거리가 멀다. 아니, 악인들은 우정이라는 것을 평생 가질 수 없다. 아리스토텔레스가 설명하고자 하는 우정론의 핵심인 자기애란 오로지 훌륭한 사람들에 대입해서만 설명 가능하기 때문이다. 앞서 엄밀한 의미에서의 우정이란 덕을 주고받는 완전한 우정만을 뜻한다고 말했을 때와 마찬가지로, 아리스토텔레스 자기애를 통한 우정의 특징은 덕이 있는 사람에게만 해당된다.

더 나아가 친구란 ‘하나의 영혼’이기 때문에, 친구를 사랑하는 것은 곧 나를 사랑하는 것이고 나를 사랑하는 것은 친구를 사랑한다는 뜻이다. 이는 자기 반성적이며, 자기 의식적인 거울로서, 우리는 우리 자신을 바라보는 것보다 친구를 더 잘 바라볼 수 있기에, 행복한 자는 친구를 필요로 한다는 주장도 가능하다. 하나의 영혼의 예로, 부모는 자식을 또 다른 나로 생각하고 사랑하며(1161b28), 예술가는 자신의 작품을 같은 방식으로 사랑한다고 아리스토텔레스는 말한다(1168a2, 25-26).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하나의 영혼으로서의 자기애를 주인과 아버지가 노예와 아들을 내 소유로 생각해서 사랑한다거나, 『향연』에서 아리스토파네스가 주장했던 구형으로서의 온전한 인간으로 이해해도 안 된다. 아리스토파네스의 완전성은 원래의 반쪽인 자들이 지나친 결핍으로 또 다른 반쪽을 찾아다니며, 둘이 아닌 하나가 되기를 간절히 갈망한다고 했는데, 이런 상황에서 양자 혹은 한쪽은 필연적으로 사라져버리고 말 것이기에, 이런 사랑은 아리스토텔레스의 자기애를 대변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sup>19)</sup> 또한 타인을 소유로 생각하는 잘못된 주인과 노예, 아버지와 아들의 사랑은 사랑을 묻게 만들어서 아버지는 자식을 내것으로, 아들은 아버지를 내것으로 말하게 될 것이다(Pol. 1262b12-16).

19) 이에 관한 논의는 Prince (1989), pp. 110-111를 참조하라.

결국 아리스토텔레스가 생각하는 ‘하나의 영혼mia phychē’으로서의 자기애란 둘의 구분이 없어지는 극단적 통일체도 아니며, 친구를 내 소유로 생각하는 의미에서의 우정도 아니다.<sup>20)</sup> 또한 친구란 아우구스티누스가 말했듯이, 어느 한 사람이 없는 삶은 죽음보다 못해서 한낱한시에 동시에 죽고자 했던 오레스테스와 필라데스의 전설처럼, 몸은 각각이지만 그 속에 들어있는 영혼은 동일한 나의 ‘나머지 절반’도 아니다.<sup>21)</sup> 친구에게 자신의 행위를 내놓고, 자신이 직접 행동하는 것보다 친구가 행동할 수 있도록 원인을 제공하는 자가 진정한 친구이며,<sup>22)</sup> 자기애란 일종의 자기반성의 길로, 자신의 덕을 쌓는 것을 친구에게 확대 적용시키는 것이다(1168b7). 이는 자신을 사랑할만한 존재가 되어야 자기 자신과 친구가 될 수 있고, 자기 자신과 친구가 될 수 없다면 다른 이와도 친구가 될 수 없다는 뜻이기도 하다. 우정의 모든 행동들이나 감정들은 자기 자신으로부터 나와서 타인에게로 나아간다(1168b6). 친구는 사유하는 자아가, 친구와 같이 관조 활동을 하며 함께 철학 하면서 행복을 소유할 수 있게 된다. 우리는 우리 자신보다 친구를 더 잘 볼 수 있고, 우리의 행동보다 그들의 행동을 더 잘 관조할 수 있기 때문이다(1169b28-1170a4).

이런 자기애로서의 우정은 개인적으로 좋을 뿐 아니라 친구를 위해 좋을 수 있고, 더 나아가 조국을 위해, 즉 공동체 전체를 위해 좋은 것을 만들어 간다. 아리스토텔레스는 자기애를 설명하면서, 인간들이 서로 경쟁하며 가장

20) 하나의 영혼과 반대되는 개념은 영혼의 분열로 악인들은 자신을 사랑하는 태도가 결여 되어 있다고 아리스토텔레스는 주장한다(1166b20-29). 김민수 (2019)는 아리스토텔레스의 우정론을 인성교육의 사상적 기초로 주장한다. 그는 덕을 지닌 소수자들만이 완전한 우정을 보여줄 수 있고, 친구란 외적 좋음의 최고의 것이며, 결국 이는 자기애로 소급된다는 점을 거론하면서 영혼의 분열된 상태를 벗어나아리스토텔레스가 제시하는 완전한 우정에 도달하게 만드는 것이 인성 교육의 목적이라고 주장한다.

21) 아우구스티누스, 박문재 역 (2016), 『고백론』, 4. 6.

22) 호메로스, 천병희 역 (2015), 『일리아스』, 9. 616, 아리스토텔레스, 김재홍 역 (2017), 『정치학』, 1287b. 29-31을 참고하라.

아름다운 것들을 행하기 위해 서로 노력할 때, 개인의 영역에서뿐 아니라 공적인 영역에서도 가장 좋은 것이 돌아간다(1169a8-11)고 주장한다.<sup>23)</sup> 8권 13장에서도 아리스토텔레스는 덕을 근거로 맺어진 친구들은 서로에게 잘해 주려고 애를 쓰며 이것을 향해 서로 경쟁한다고 설명한다(1162b8). 이 주장에 따르면 우정이란 자기애에서부터 시작하여, 태어나면서 관계를 맺는 부모님과, 주변 친구들에게, 그리고 공동체로까지 확대된다.

### 3. 친족에서 시민 전체로 뻗어나가는 우정

아리스토텔레스의 우정은 자기애로 출발하여, 친족과 친구 간의 우정으로 나아가며, 더 나아가 시민들 간의 정치적 우정으로도 뻗어 나간다. 대부분의 학자들은 아리스토텔레스의 우정론을 설명하면서 친족간의 사랑을 간과하고 있으며, 특히 아버지와 아들 사이의 효에 대해 제대로 검토하지 않고 있다. 효라고 하면 마치 동양적인 덕으로 생각되는데, 우정론을 설명하는 『니코마코스 윤리학』 8권과 9권에서 효에 관한 설명은 심심치 않게 등장한다. 아버지와 아들 사이의 사랑을 사실 우정이라고 부르기 힘들어 보이지만, 아리스토텔레스에게 필리아인 우정은 우월성에 기초한 사랑으로 아버지와 아들 사이뿐 아니라, 세대 간의 관계에서도, 그리고 남편이 아내에게 가지는 사랑에서도, 심지어 통치자가 피통치자에게 가지는 관계에서도 나타난다.<sup>24)</sup>

23) Stern-Gillet (1995), p. 117는 여기서 경쟁한다는 동사 hamillaomai가 라이벌이나 적들 간에 서로 싸우는 경쟁compete이 아니라 서로가 더 나은 것을 찾으려고 노력하는 것strive을 뜻한다고 보았다. 그녀는 예수님이 찾아오셨을 때 마리아는 예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 옆에 앉아 있었고, 마르다는 예수님을 대접하기 위해 음식을 준비했는데, 이 둘의 행동이 경쟁을 뜻하며, 이는 서로 예수님을 차지하기 위해 다툼을 하는 것이 아니라, 서로가 서로보다 더 나은 것을 찾기 위해 노력하는 모습으로 설명했다.

24) 우월성에 관한 관계 중에서 아리스토텔레스는 신과 인간 간의 우정은 성립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그에게 있어 우정이 동등한 관계뿐 아니라 우월성에 기초한 수직적 관계에서도 성립될 수 있지만, 그 차이가 너무 심한 신과 인간의 관계에서



특별히 아리스토텔레스는 “자식들이 자신을 낳아준 부모들에게 마땅한 것들을 되돌려 주고, 또 부모가 자식에게 합당한 것을 되돌려 줄 때 이들 사이의 우정은 지속적인 것이 되고 훌륭해질 것”이라고 주장한다(1158b23-24). 우정의 특징 중 하나가 동일한 것을 주고받는 것이기에, 부모의 사랑을 되돌려주는 것이 효이지만, 이는 마치 사랑이라기보다 정의처럼 보이는데, 이와 같이 아리스토텔레스의 우정의 개념에는 정의의 개념이 늘 함께 한다. 그에 따르면 모든 공통의 교제koinōnia에는 어떤 정의로움과 우정이 존재하기 때문이다.

아리스토텔레스는 아버지와 아들 간의 우정을 가부장적 우정으로 부르는데, “아버지는 아들의 존재 원인이며, 이것이 가장 큰 선행”이라고 주장한다(1161a17). 더군다나 아버지는 존재뿐 아니라 아들의 양육과 교육도 책임지고 있는데, 이런 이유로 본성상 아버지는 자식에게, 조상은 후손들에게, 통치자는 피통치자에게 지배적인 권위archikon를 갖게 된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아버지를 존경하며 사랑해야 한다. 이런 관계는 남편과 아내, 형제들 사이에서도 성립한다.

부모들은 자식들이 자신들의 일부인 것처럼 사랑하는 반면, 자식들은 부모들로부터 자신들이 태어났다는 이유로 부모를 사랑한다고 아리스토텔레스는 설명한다(1161b18-19). 부모가 물려준 머리카락도 우리는 소중히 여겨야 하며, 형제들 역시 같은 부모로부터 태어났다는 이유로 서로 사랑해야 한다. 우리에게 같은 피나 같은 뿌리 같은 말로 서로 끈끈해지는 것은 이런 이유에서 비롯된 것이며, 우리는 존재의 원인으로서 부모를 사랑하며, 효를 다해야 한다. 이때 우리의 효는 똑같은 것을 되돌려주는 것보다, 부모님과 형제들, 동료들과 은인들에게 서로 다른 것을 분배해야 하는데, 각자에게 고유하면서 어울리는 것을 되돌려 줘야 한다(1165a15-18).

---

는 성립될 수 없다는 것이다. 따라서 친구에게 좋은 것을 바라는 것이 우정의 특징이지만, 친구가 최고 좋음인 신이 되는 것을 과연 바라는가의 문제도 발생하게 된다(8권 7장).

따라서 우리는 부모에게 채무자의 역할을 감당하며 부모님의 생계를 책임지고, 아버지와 어머니에게 걸맞는 명예를 드려야 한다. 그리고 이런 사랑을 확대해 모든 나이든 분들에게 연륜에 따른 명예를 드리며 식탁에서 자리를 봐 주거나 자리를 양보하는 등의 마음을 보여야 한다(1165a28-30)고 아리스토텔레스는 강력하게 주장한다. 그는 한 장을 할애해 8권 12장에서 친족적 우정에 관해 설명한다. 친족들 사이에 존재하는 우정은 친구 사이의 우정 중에서 절친<sup>hetairikē</sup>에 해당된다는 것이다.

그리고 아리스토텔레스는 이렇게 끈끈한 우정으로부터 범위를 확대시켜 한 마을 사람들 간의 우정, 그리고 같이 항해하거나 같은 나라의 시민으로서의 우정인 점점 덜 끈끈한 우정에 이르기까지 모든 공통의 교제 속의 우정을 다 담아내려고 노력한다.<sup>25)</sup> 따라서 타인과의 관계에서 가장 진한 우정은 부모와 자식 간의 우정이고, 이는 내 자신의 존재가 생겨난 것에 대한 보답하는 사랑뿐 아니라 태어나면서부터 느끼게 되는 본성적인 우정이다. 그리고 점차 희석된 우정은 가족을 넘어서 정치 체제와 관련된 한 국가 내에 시민들 간의 우정으로 뻗어간다.

그렇지만 국가 내에서 시민들간의 우정은 각 정치 체제에 따라 다른 정도로 존재한다. 아리스토텔레스 우정론의 핵심은 동등성과 유사성에 있으며(1159b3), 서로 동등한 사람들 사이에는 공동의 것들이 많기 때문에, 그는 참주정보다는 민주정에서 더 많은 우정이 있을 수 있다고 말한다. 하지만 우정이란 서로 잘 아는 친구 사이에서 성립하며, 함께 시간을 보내야 하는데, 서로 얼굴도 모르고 수적으로 많은 사람들 사이에 성립하는 것이 가능할까? 아리스토텔레스는 본래 우정이 소수의 사람을 향하고 있고, 수많은 사람들과

25) 하지만 아리스토텔레스의 우정은 헬레니즘 시대에 유행했던 세계시민주의로서의 인류애까지 확대되진 않는다. 그는 인간은 모든 사람이 같은 조상을 갖는 친척이자 친구이기에 인류애를 가진 자<sup>philanthropos</sup>로 언급하긴 하지만(1155a20), 우정에 관한 8권과 9권의 논의에서 인류애를 본격적으로 우정에 포함시켜 설명하진 않는다. 이는 그가 중시한 것이 공동체인데, 그 공동체의 가장 큰 범위를 폴리스로 보았기 때문이다.

친구가 되는 것은 불가능하지만, 실제로 가능하다면 그 유일한 범위는 국가 공동체의 동료 시민으로서만 가능하다고 주장한다. 물론 아리스토텔레스는 인류애에 관해 언급은 하지만, 그의 우정론은 견유학과나 스토아학파가 주장하는 것처럼 세계시민으로까지 확대되지는 않는다.

우선 아리스토텔레스는 몇 명이 다스리느냐에 따라 정체를 세 종류로 나눈다. 즉, 한 명이 다스리는 경우와 여러 명이 다스리는 경우, 많은 사람들이 다스리는 경우, 각각 다른 정치 체제와 다른 우정의 관계를 가지고 있다고 설명하면서, 이를 가족 간의 사랑에도 대입시킨다.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는 군주정의 형태와 비슷하고, 남편과 아내의 관계는 귀족정의 형태와 비슷하며, 형제들 간의 관계는 금권정과 비슷한데, 각각의 정치체제에서 우정은 정의가 나타나는 만큼 나타난다.<sup>26)</sup>

그렇지만 이런 가족관계와 정치 체제의 연결을 플라톤이 주장했던 국가 내의 획일적 통일성으로 이해해서는 안 된다. 아리스토텔레스는 『정치학』 2권 4장에서 플라톤의 처자 공유와 사유재산을 부정하면서 국가 내에서의 우정과 친밀성이 플라톤의 것과 다르다고 선을 긋는다. 재산을 공유하면 친구가 될 수 있는 게 아니라, 친구가 되면 재산은 공유하게 되는 것이다. 물론 그는 재산은 사유화해야 하지만 재산의 사용은 공유화해야 한다고 주장하는데, 그에게 있어 중요한 것은 돈이나 재산의 공유보다 국가를 하나로 만드는 덕으로서의 우정이며, 따라서 처자 공유와 재산 공유로 인해 누구나 친구가 될 수 있으리라는 플라톤의 제안은 사실상 불가능하며, 내 것을 소유하고 싶은 인간의 본성 때문에 재산 공유제는 사유재보다 더 많은 분쟁을 초래할 것이라고 아리스토텔레스는 보았다.

플라톤과 달리 아리스토텔레스는 국가의 단일화와 통일성보다는, 다양한 시민들이 자신의 기능에 맞게 함께 살아가면서 다양해질 필요가 있다고 생각했다. 아리스토텔레스는 정치적 우정을 마음의 일치인 호모노이아

26) 이와 관련된 설명은 아리스토텔레스 『정치학』 3권 7-8장에도 등장한다.

Homonoia로 보았는데, 이는 같은 지성을 갖는 것으로, 무엇이 국가에 유익이 되는지, 무엇이 공동의 이점으로 결의하며 실행해야 하는지에 관한 견해의 일치를 뜻한다. 마음의 일치로서의 정치적 우정이야말로 국가의 갈등과 분열을 몰아내며 공동의 이익을 위해 함께 잘 사는 것을 추구하게 해주는 동력이 될 수 있다.

정치적 우정은 앞에서 말한 세 종류의 사랑 중, 유익을 주고받는 우정에 속하는 것으로, “한 배에서 함께 일하는 선원들도 서로의 안전과 이익을 추구하기 위해 함께 일하고 있다는 것을 느끼면서 우정의 관계를 맺고 있다”(1160a15-16). 이와 같이 서로의 유익을 위해 협동해서 행동한다면 이는 우정의 관계이며, 국가 내 시민들뿐 아니라, 국가와 국가 간의 동맹도 이런 관계의 우정을 맺을 수 있다(1157a26-28).<sup>27)</sup>

이와 같이 아리스토텔레스의 우정론은 사실 가족 간의 관계에서 출발해서 개인과 개인과의 친목, 그리고 시민들 간의 관계 속에서도 구체화된다. 자기를 사랑하는 자기애에서 시작해서 자기를 사랑하는 태도로 친구를 사랑하며, 자신의 존재 이유로 부모님을 사랑하고, 형제들끼리 우애롭게 지내며 살아갈 때에 내 행복을 획득할 뿐 아니라 공동의 선도 획득할 수 있다. 국가란 구성원들의 안전과 단순한 생존에 있지 않고, 훌륭한 삶을 제공하는 데 있다(Pol. 1280a30). 그리고 이런 삶을 위해서 가장 필요한 것은 우정이며, 이는 개인의

27) 정치적 우정이 어떤 성격의 우정이나에 관해서는 장미성 (2016), 김상돈 (2020), 손병석 (2020)을 참고하라. 정치적 우정이 유익을 위한 우정인지, 아니면 이를 넘어서 완전한 우정으로 갈 수 있는지에 관한 점이 아직까지 학자들 간에 논의 중에 있다. 김상돈은 정치적 우정을 유익을 위한 우정으로 보는데, 이때 유익이란 합의와 계약에 따른 개인의 경제적 이익, 지도자를 선출하고 동맹을 맺는 데서 얻는 정치적 이익, 종교 제전과 오락을 통해 함께 살아가면서 얻는 사회적 이익으로 설명한다. 반면에 손병석은 개인적 영역에서의 우정과 공적인 영역에서의 정치적 우정의 차이점을 지적하면서 가족 구성원간의 사랑과 시민들간의 사랑은 다른 차원의 것이라고 주장한다. 그에 따르면 최선의 정치 체제에서 시민들의 정치적 우정은 완전한 우정으로 전환이 가능한데, 이는 정치적 통치권을 공통의 것으로 인정하는 폴리티케 아르케 politikē archē와 덕있는 사람들의 호모노이아 homonoia로 가능하다.

덕뿐 아니라 시민 전체가 지녀야 할 덕으로 확대되어야 한다. 따라서 개인뿐 아니라 국가에서 가장 필요한 것은 정의보다 우정이다. 이를 통해서 시민들 간의 친밀함을 형성할 뿐 아니라 덕을 함께 나누며, 모두가 행복하게 살 수 있기 때문이다. 이를 위해 필요한 것은 시민들을 위한 교육 프로그램으로, 정치학의 목적은 시민교육이 된다.<sup>28)</sup>

사실 어떻게 하면 우정을 가르치고 배우며, 한 공동체 내에 나타낼 수 있을까는 오히려 『정치학』에서 설명된다. 인간은 누구나 공동체에서 살 수밖에 없는 동물이며, 이미 태어나는 순간 한 가족 내에서 관계를 맺고 우정을 나누게 된다. 그리고 나면서 우리는 한 공동체의 시민으로서 타인과의 우정의 관계를 만들어 가야만 한다. 따라서 한 나라에서 정의를 실행하는 법정 소송과 관직자를 선출하는 선거일과 국가의 의무를 다하는 국방의 의무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함께 우정을 느낄 수 있는 국가의 종교적 제의나 축제이다. 이를 통해 우리는 하나됨을 느끼고 공동의 선을 추구하면서 행복을 느낀다. 오늘날 올림픽이나 국가 간 문화교류와 공연은 이런 차원에서 중요시되는 것이다.

아리스토텔레스는 자신의 윤리학에서 사랑의 원인에 관해 고민하면서, 철학적 해답을 주고자 노력했다. 우정이란 우리가 속해있는 모든 공동체에 가장 필요한 덕이며, 이를 통해 우리는 더 나은 미래를 바라보며 나의 행복을 추구하면서 동시에 친구의 행복을 추구하는 존재로 살아갈 수 있다.

### III. 나가며: 함께 훌륭한 삶을 살아가기

아리스토텔레스는 『니코마코스 윤리학』에서 행복이 무엇인지 설명하고 있다. 행복은 덕에 따르는 영혼의 활동이며, 이는 결국 최고의 지적 활동인

28) 『정치학』은 8권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7-8권이 시민교육에 관한 것으로 1/4분량을 차지하는 중요한 주제이자 마지막에 강조하고자 하는 정치학의 핵심 주제가 된다.

관조로 귀결된다. 행복이 활동이라는 점에서 그리고 행복은 일시적인 것이 아니라 지속적인 것인 한에 있어서 행복은 주관적이거나 감정적인 것이 아니라 덕이 핵심이며, 이를 위한 외적 좋음도 필요하다. 『니코마코스 윤리학』에서 아리스토텔레스는 11개 혹은 13개 이상의 덕을 행복과 관련해 설명하고 있는데, 그 중 가장 중요한 덕은 바로 우정이다.

우리는 자신을 사랑하는 태도를 통해 타인을 사랑할 수 있다. 아무리 완벽하고 모든 것을 다 갖춘 행복한 자라도 친구는 필요한데, 친구는 모든 외적 좋음 중 최고의 것이며, 행복한 자는 선행의 대상이 필요하고 우리는 본성적으로 함께 살아가게끔 되어 있기에 친구란 인생에 있어 가장 필요한 존재이다. 사실 이 모든 것은 내가 덕을 지닌 좋은 사람이 되었을 때 진정한 의미의 우정이 가능하다.

더 나아가 우리는 나를 보기 위해 친구를 봐야 하며, 즐겁게 연속적인 활동을 더 하기 위해 친구가 필요하다. 아무도 혼자 사는 것을 행복하다고 부르지 않는다. 따라서 덕을 연마하기 위해, 나의 행복을 위해 친구와의 우정은 필수적이다(1170a12). 우정이란 친구를 위해 취향과 가치를 선택하며, 고통과 기쁨을 함께 공감하고 서로 고귀한 것을 행하기 위해 서로 노력하는 것이며, 이런 이유로 우리는 친구들과 함께 놀며, 대화 나누고, 함께 철학하는 것이다.<sup>29)</sup> “친구가 존재한다는 것을 친구와 더불어 지각하는 일이 필요한데, 이것은 함께 살며 서로 말과 생각을 나누는 일을 통해 성립한다. 인간에게 있어서 함께 산다는 것은 가축의 경우처럼 같은 공간을 배정받았다는 뜻이 아니라, 이런 것, 즉 말과 생각을 나누는 것을 의미하는 것으로 보이기 때문이다.” (1170b12-14)

내가 선택해서 이루어진 에로스의 관계와 다르게, 우정은 자신의 선택뿐 아니라 태어나면서부터 이미 주어진다. 그리고 에로스는 플라톤이 여러 대화

29) Burger (2003)는 9권 마지막 장인 12장에 등장하는 여러 활동 중(1172a3-5), 함께 사냥하는 것을 에로스의 특징으로 함께 철학하는 것 필리아의 특징으로 보았다.

편에서 말한 것처럼, 광기나 신적인 것에 의해 이끌려 가는 것임에 반해, 우정은 내가 선택하고 실천해 가면서 덕을 쌓아가는 것이다. 아마도 이런 이유로 그리스신화에서 에로스(에로스)에 관련된 아프로디테와 에로스라는 신은 등장했어도, 필리아의 신은 없었을 것이다. 이는 외부적 힘에 의해 내가 수동적으로 이끌리는 것이 아닌 내가 스스로 선택하고 결정하는 덕과 관련된 활동이 우정이라는 뜻이다.

특히 아리스토텔레스가 강조한 점은, 모든 사랑이 즐거움과 유익을 주고받는 것에서 덕을 주고받는 완전한 사랑으로 발전해 나아가야 한다는 점이다. 우정은 마음 맞는 친구들 간의 주고받는 물건이나 감정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함께하는 덕의 활동에 있다. 우정 없이 우리는 행복해질 수 없으며, 친구란 훌륭한 삶을 위해 가장 필요한 삶의 동반자로 윤리학의 핵심인 것이다.

## 참고문헌

- 강상진 (2003), 「아리스토텔레스의 필리아(philia) - 자기애와의 관련을 중심으로」 『인간연구』, 4: 105-123.
- 김민수 (2019), 「아리스토텔레스의 친애론의 현재적 의미 재구성과 인성교육 - 『니코마코스 윤리학』의 8권, 9권을 중심으로」, 『윤리교육연구』, 51: 599-633.
- 김상돈 (2020), 「아리스토텔레스의 시민적 친애」, 『윤리연구』, 131: 43-70.
- 오현석 (2020), 「『니코마코스 윤리학』에서 친구와 행복 -9권 9장에 대한 한 해석」, 『철학』, 145: 27-56.
- 이상일 (2018), 「아리스토텔레스주의자로서 토마스 아퀴나스는신의 친구가 될 수 있는가?」, 『철학논총』, 92: 143-171.
- 이창우 (2021), 「아리스토텔레스 윤리학에서 우정과 자기애 - 『니코마코스윤리학』 8-9권을 중심으로」, 『철학사상』, 79: 3-37.
- 손병석 (2020), 「왜 친애(philia)가 정의보다 더 중요한가? : 아리스토텔레스의 정치적 친애(politikē philia)와 호모노이아(homonoia) 그리고 덕친애의 관계를 중심으로」, 『철학연구』, 131: 1-29.
- 장미성 (2014), 「아리스토텔레스의 에로스와 친애」, 『철학연구』, 104: 27-64.
- \_\_\_\_\_ (2016), 「마음의 일치로서의 아리스토텔레스 정치적 친애」, 『철학연구』, 115: 245-270.
- 김인곤 외 역 (2005), 『소크라테스 이전 철학자들의 단편 선집』, 파주: 아카넷.
- 아리스토텔레스, 강상진 외 역 (2011), 『니코마코스 윤리학』, 서울: 길.
- \_\_\_\_\_, 송유례 역 (2021), 『에우데모스 윤리학』, 파주: 아카넷.
- \_\_\_\_\_, 조대호 역 (2017), 『형이상학』, 서울: 길.
- \_\_\_\_\_, 김재홍 역 (2017), 『정치학』, 서울: 길.
- \_\_\_\_\_, 천병희 역 (2017), 『수사학』, 서울: 숲.
- 아우구스티누스, 박문재 역 (2016), 『고백론』, 파주: CH북스.
- 크세노폰, 오유석 역 (2015), 『경영론, 향연』, 서울: 부북스.
- 플라톤, 김남두 외 역 (2018), 『법률』, 파주: 나남출판사.
- \_\_\_\_\_, 강철웅 역 (2018), 『향연』, 파주: 아카넷.
- \_\_\_\_\_, 강철웅 역 (2021), 『뤼시스』, 파주: 아카넷.



\_\_\_\_\_, 유혁 역 (2021), 『카르미데스』, 파주: 아카넷.  
호메로스, 천병희 역 (2015), 『일리아스』, 서울: 숲.

- Adkins, A. (1963), "Friendship and Self-sufficiency in Homer and Aristotle," *The Classical Quarterly*, 13: 30-45.
- Annas, J. (1988), "Self-love in Aristotle," *Southern Journal of Philosophy*, 27: 1-18.
- Aristotle. (1934), *Nicomachean Ethics (Loeb Classical Library XIX)*, Trans. by H. Rackham, Cambridge: Harvard University Press.
- Aristotle (1998), *Nicomachean Ethics: Books VIII and IX. with a Commentary*, Trans. by M. Pakaluk, Oxford: Clarendon Press.
- Aristotle. (2019), *Nicomachean Ethics*, Trans. by T. Irwin & notes, 3rd ed., Indiana: Hackett Publishing.
- Barnes, J. (1995), *The Complete Works of Aristotle: The Revised Oxford Translation (6th printing, with corrections)*, Princeton: Princeton University Press.
- Belfiore, E. (2000), *Murder among Friends*, Oxford: Oxford University Press.
- Burger, R. (2003), *Hunting together or Philosophizing together*, in E .A. Velásquez (ed.) *Love and Friendship: Rethinking Politics and Affection in Modern Times*, Lanham: Lexington.
- D'Angour, A. (2019), *Socrates in Love: The Making of a Philosopher*, New York: Bloomsbury Publishing.
- Donlan, W. (1980), *The Aristocratic Ideal in Ancient Greece: Attitudes of Superiority from Homer to the End of the Fifth Century B.C.*, KA: Coronado press.
- Dover, K. J., 1978, *Greek Homosexuality*, Cambridge: Hackett Publishing.
- Goldhill, S. (1986), *Reading Greek Tragedy*,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 Heath, M. (1987), *The Poetic of Greek Tragedy*, U.K: Duckworth.
- Irwin, T. (1988), *Aristotle's First Principles*, Oxford: Clarendon Press.
- Kahn, C. (1981), "Aristotle and Altruism.," *Mind*, 90: 20-40.
- Konstan, D. (2006), *The Emotions of the Ancient Greeks: Studies in Aristotle and Classical Literature*, Toronto: University of Toronto.
- Ludwig, P. W. (2020), *Rediscovering Political Friendship*,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Montaigne, M. de (1976), *The complete essays of Montaigne*, California: Stanford University Press.

Nussbaum, M. C. (1986), *The Fragility of Goodness: Luck and Ethics in Greek Tragedy and Philosophy*,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Price, A. W. (1989), *Love and Friendship in Plato and Aristotle*, Oxford: Oxford University Press.

Stern-Gillet, Sizanne (1995), *Aristotle's philosophy of friendship*, Albany: State University of New York Press.

**【Abstract】**

Aristotle's Friendship(Philia)  
in the *Nicomachean Ethics* Book VIII and IX

Jang, Misung

It is said that love is not an object of inquiry in philosophy, but philosophy began with the inquiry of love. In Plato's first work on friendship, *Lysis*, Socrates asked why he loved friends, but did not clearly distinguish between Philia and Eros and desires, but only mentioned the love of parents, erotic love, and love and things between friends. On the other hand, Aristotle systematically organizes everything about friendship in *Nicomachean Ethics* and defines it as the best virtue. Friendship is divided into friendships for pleasure, for utility, and for virtue, depending on what they give and receive. Friendship is the most necessary thing in life, the most important thing for opportunities for good deeds, and the core of friendship is self-love. Aristotle's friendship is not about any madness or divine passion or emotion that comes from outside, like Eros, but about human virtue, and is obtained through constant activities of virtue. Aristotle's characteristics of friendship include relationships between father and son, husband and wife, brothers and friends, as well as with citizens within a community, starting with self-love and choosing what is noble, and striving to do the most noble things. When we are born, we do not stay in a given family relationship, but practice virtue through friendship and pursue complete love, and finally achieve happiness, which means a flourishing life.

**【Keywords】** Aristotle, *Nicomachean Ethics*, Love, Friendship, Philia, Virtue, Happiness

논문 투고일: 2022. 04. 03

심사 완료일: 2022. 04. 22

게재 확정일: 2022. 04. 22

